

불교계도 '美 쇠고기 반대' 나섰다

교계단체 잇단 성명서 발표...대불련 시위참여 공식 선언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밤마다 촛불이 켜진지 6월 5일 현재 29일이 지났다. 촛불집회 초기, 침묵을 지키던 불교계가 정부의 수입고시 발표를 전후해 성명서를 잇달아 내면서 광우병 쇠고기 반대운동에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법안)는 5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와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한상범)와 불교평화연대(공동대표 진관·무연·황정·현종)이하 불교인권연대도 5월 3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불교인권연대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를 "전 국민을 평생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한심한 처사", "민족과 국가의 자존을 내팽개친 노예근성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6월 2일에는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정현)가 각각 성명서를 발표



6월 3일 서울 시청 앞 촛불집회에 참여한 동국대 학생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했다. 대불련은 6월 2일 '폭력진압으로 시민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식 시위참여를 선언했다.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에는 청와대 스님(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계종 교육원장), 원택 스님(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의사 주지), 지현 스님(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청량사 주지) 등 사회원로와 각계 인사

114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청와대 스님 등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가 지난 20년간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방 불교계도 나섰다. 5월 30일 광주불교사담연합회(회장 정인), 광주전

남 포교사단, 광주불교교육원, 호남불교문화원 등 호남지역 불교신행단체가 광주시내 충장로에서 시민 1만여 명이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광주 불교인 기도회'를 여는 등 전국 각지의 지역불교계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교계는 발표 단체와 발표시기가 달라다 ▲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 한반도 대운하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가 민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교평화연대 조혜은 간사는 "지속적인 촛불집회에 나서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재협상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촛불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불자는 "1만명 이상이 매일 촛불을 밝힌 지 한 달이 다 돼 발표된 불교계 성명서는 뒷북"이라며 "전 국민이 간절히 호소하는데 조계종 총무원 등 불교계 지도부가 힘을 보태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북한 동포 돕기 '넘치는 온정'

JTS 대북식량지원 성금 모금에 시민 참여 줄이어



6월 29일 북한에 긴급식량 20만톤 지원을 호소한 수경 스님 등 종교사회 지도자들이 쌀독 채우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동포가 굶주린다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북식량지원을 위해 대국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JTS에 무려 2억8900만원(5월 31일 현재)의 성금이 모였다. 정토회 산하 좋은벗들이(이사장 법륜)이 북한사회 동향을 보고한지 일주일만의 일이다.

JTS는 동포의 밥상 체험 캠페인인 '미안하다 동포야'를 전국 13개 도시에서 5월 26~31일까지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JTS 이사장 법륜 스님은 북한사회 동향을 알릴 때부터 11일간(6월 5일 현재) 단식하며 대북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터넷 포털, JTS 계좌, 거리캠페인 모금함에 동포의 굶주림을 가슴아파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쌓인 것이다.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도 있었다.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에서 직원과 원아 가족들이 200만 원을 모아 전달한 것이다. 원아 20여명은 또한 5월 27일 JTS가 부산항에서 밀가루 200톤을 선적할 때도 찾아와 격려의 노래를 부르고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띄우기도 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어떻게 쓰일까. JTS는 현재 중국에서 옥수수를 매입하려고 노력 중이다.

JTS는 '북한 해외동포원호 위원회'와 연계된 단체인 평양 이외의 타 지역에서는 활동이 가능하다. 우선 시급한 식량분부터 중국에서 사들여 굶주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 함경도 주민들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항에서 선적한 밀가루 200톤은 현재 나진항에 도착, 함경도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된 상태다.

JTS 김예경 사무국장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보며 활동가들도 큰 자기를 받고 있다"며 "정부가 빨리 육로를 열어 북한 사회에 당장 필요한 곡물 20만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JTS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종교·사회지도자들은 6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주민 6-7월 아사를 막기 위한 식량 20만톤 긴급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을 비롯한 종교·사회지도자 16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을 살릴 방법은 오직 한국 정부의 긴급지원밖에 없으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우선 살려놓고 보는 것이 인도주의정신"이라 강조하며 북한에 20만톤 식량을 긴급지원 할 것을 정부와 국민에 촉구했다.

김강진 기자

"서울·경기 땅에 생명·평화 심는다"

생명 평화탁발순례단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은 6월 3일, '생명'과 '평화'의 근원적 해결을 기치로 시행돼 왔으나 올해는 현안인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시민사회종교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결하기 위해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에 합류, 일정이 늦춰졌다. 순례단은 "이번 생명평화탁발순례는 '평화의 눈으로 한반도 대운하와 선진대안문명사회를 생각하는 순례'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매년 3월, '생명'과 '평화'의 근원적 해결을 기치로 시행돼 왔으나 올해는 현안인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시민사회종교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결하기 위해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에 합류, 일정이 늦춰졌다. 순례단은 "이번 생명평화탁발순례는 '평화의 눈으로 한반도 대운하와 선진대안문명사회를 생각하는 순례'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한반도 대운하계획 철회하라"

영남지역 조계종 9개 교구본사 공동성명서

영남지역 조계종 9개 교구본사가 한반도 대운하 반대 입장을 밝힌 예정이다.

명서는 9개 교구본사의 공동명의로 발표된다.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등 9개 본사는 6월 2일 대구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6월 12일 이후 3시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

명서는 9개 교구본사의 공동명의로 발표된다. 운하백지화불교행동 정우식 사무국장은 "영남지역은 대운하 사업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여론이 대운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12일 성명서가 발표되면 영남권 불교계 여론이 '대운하 반대'를 명확하게 표명하게 되므로 대운하 계획 철회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불교방송, 10월 IPTV 서비스

BBS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6월 5일 IPTV로 사업영역을 넓혀 이르면 10월 본방송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 신청을 마쳤다. 편성제작국을 방송제작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TV 방송을 위한 조직개편도 마쳤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등록제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청 후 1개월 내 사업자로 등록될 예정이어서, BBS는 5월 29일 방송방송통신위원회에 방

조동섭 기자

"고압송전탑이 수행환경 훼손"

영천 전문가, 종교활동 위축 등 피해 호소

경북 영천의 한 사찰이 고압 송전탑으로 인해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어 5월 31일 동화사 앞으로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사찰 옆을 지나는 18개의 고압선과 쇠붙이 송전탑이 주는 위압감과 거부감 때문에 사찰에서의 수행과 종교활동의 기능이 위축됐고 신도들이 발길을 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천시 청통면 전문사(주지 진구)는 지난 5월 25일 "한국전력이 전문가와 의 약속을 어기고 5월 23일 야밤에 기습적으로 사찰 정면에 고압 송전탑을 설치했다"며 "청통면전소내 PP등록 후 9월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한다."

전문사 주지 진구 스님은 "지난 2004년 완공된 인근 변전소와 송전탑의 영향으로 사찰 스님과 신도들

한테 이유 없는 병이 나타나고 있고 휴대폰이 불통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전력이 2004년 8월 사찰과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선로를 묻거나 전선주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최근 일방적으로 송전탑 공사를 벌인 뒤 항의의 민원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대구전력관리처 관계자는 "사찰 앞에 송전탑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송전탑으로 인한 사찰의 경관 훼손 등은 주변에 큰 나무를 심어서 가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 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KM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 검색엔진 마미로봇

성 불 조 각 원 www.sun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하지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 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옹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종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